일 주 문



조계사 생명살림기도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10일 하안거 회향을 맞아 생명살림기도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다.



오대산 디지털사진 공모전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9월 30일까지 오대산 디지털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 받는다. 발표는 10월 12일이다. (033)339-6800



티베트 '잠 요가' 강연

티베트 텐진 왕걀 린포체는 9월 23~2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잠 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엄홍길 휴먼스쿨 전시회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히말라야의 꿈' 전시회를 연다.

스타 작가 · 미스코리아, 동국대 강단 선다

금나나 등 임용… 정덕 스님, 불교학과 교수로



금나나



정덕 스님

불자 미스코리아이자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수재인 금나나 씨와 드라마 한류의 시작을 알린 '겨울연가'의 작가 오수연 씨가 교수로서 동국대 강단에 선다. 또한, 불교대학 신규 교원으로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연구한 정덕 스님이 임용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지난 이사회를 통해 미스코리아 출신 금나나 씨와 '겨울연가' 작가 오수연 씨, 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김봉건 씨,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연구한 정덕 스님 등 9명을 신규 교원으로 채용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금나나 씨는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오수연 작가는 국문 · 문예창작학부 조교수로 각각 임용됐으며, 이번 가을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금 씨는 경북과학고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예과에 재학 중 2002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됐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영양학, 역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불교대학 불교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정덕 스님은 서강대 불어불문학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불교학과를 석사로 졸업했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Oriental Institute)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중앙승가대 부교수로 재직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 명상 보급 터전 만들 터"

Interview

'회두피안' 재단에 50억 원 출연한 황경환 교수

대지 1000평 비롯 재단 출연
자택 개조한 명상센터 추진
"명상 보급화에 기여할 것"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불교명상이 최고입니다. 생활 속 명상 보급을 위해 각계 불자들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불교명상의 보급을 위해 한 재가불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황경환(67 · 사진)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황 교수는 8월 30일 경주 남산동 명상센터 예정지에서 재단법인 '회두피안'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황 교수가 출연한 재산은 대지 1000여 평을 비롯해 주택과, 주식, 현금을 포함해 총 50여억 원에 이른다.

황 교수는 경주IC 휴게소를 비롯해 진양유조선을 운영하며 자산을 모은 대표적인 한국불교계의 장자다. 그동안 동국대 경주 캠퍼스 명상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기부하고, 원전 연구도 후원하는 등 불교 발전에 힘써왔다.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교육하는가 하면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맡아 불전 연구에도 앞장서 왔다. 또 BBS울산불교방송 사장과 울산시 불교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황 교수는 "번뇌에 속박된 현상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세계인 열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한다. 회두피안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돌려 피안을 바라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명상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많은 이들이 정작 명상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주택을 명상센터로 개조해 많은 이들이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상에 대해 "현재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따른 명상법은 드문 실정"이라며 "명상법 연구와 보급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회두피안 재단은 향후 명상수련 공간인 단마홀 건립을 비롯해 명상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명상세미나 개최와 간행물 발간, 전화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마홀은 현재 황 교수가 출연한 주택을 개조해 건립되는 것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 출범 후 공익재단으로도 재단 변경이 추진될 예정이다.

황 교수는 "탐진치로 인해 고통 받는 불자들이 바른 정법을 통해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 올바른 명상법을 제시하는 터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황 교수는 이에 앞서 2016년 재미과학자 김사철 박사와 반야심경 원문 해석 및 108요담을 담은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을 펴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실천하는 경찰들 모임으로"

박재진 제 5대 경찰불자회장 27일 취임



"지역 불자경찰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비실천을 일상생활에서 펼치도록 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경찰들의 구심체인 경찰불교회의 5대 회장에 충북지방경찰청장 박재진 치안감〈사진〉이 추대됐다. 경찰불교회는 8월 27일 범어사에서 창립 16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교회 회장 이 ·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경찰불교회는 경찰이란 직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모여 불교 속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 단체장들과 모임을 가져 개선사항들을 찾고자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각 지역별 법회와 신행 모임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승단 스님들과 연계해 지역 불교와 밀접히 연결 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전의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찰대 재학 당시 교내 동아리 활동이 자유로워지며 박 회장은 종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모아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다. 1982년 용주사 주지였던 정무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불교 수행을 시작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김문자 씨

중장기 사업으로 복합불교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주불교계를 이끄는 조계종 23교구 교구신도회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는 8월 25일 각 신행단체와 신도단체, 말사 신도회를 아우르는 교구신도회의 새 신도회장으로 김문자 신도회장〈사진〉을 임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 등 도내 스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김태석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등 기관단체장, 20여 관음사 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문자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영광보다는 무거운 짐을 느낀다"며 "교구 신도회의 부름은 시대를 포용하고 더 넓은 도량을 경작하라는 소명으로 받들어 제주불교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함께 하여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신도회'를 주제로 제주 23교구 신도회는 각종 불사에 동참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 사업으로 복합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불교라디오방송 개설 그리고 제주불교인의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선출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사진)이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해인승가대학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면 스님은 "다시 한 번 큰 소임을 맡겨준 동문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을 늘려 해인동문장학회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덕성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 양성에 큰 힘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년 발족된 해인동문장학회는 학인 스님들에게 매년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장학승 47명에게 총 4,200만원의 장학금 및 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국사, 경주외국인센터와 MOU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8월 28일 경주외국인센터 사무소에서 외국인센터(소장 윤혁권)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한국불교 문화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부지도법사 일선 스님과 이병학 템플스테이 실장을 비롯해 윤혁권 경주 외국인센터장, 이원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미 청소년 미국 현지 연수 성료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한미청소년불교교화연수단을 구성해 8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과 LA 등지에서 청소년 연수를 진행했다. 단장 정범 스님을 비롯해 27명으로 구성된 제7회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은 미국 청소년 23명과 스탭 등 30여 명과 함께 뉴욕 불광선원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